



배우 유준상(왼쪽부터), 조윤희, 신하균이 tvN 새 월화드라마 '피리부는 사나이'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협상극' 피리부는 사나이 시청자와 협상 통할까

신하균·유준상·조윤희 주인공...tvN 3월 7일 첫 방영 시청률 5% 넘으면 현지 협상관들에 점퍼 선물 '공약'

“최악의 상황에 필요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대화다.”

오는 3월 7일 첫 방송하는 tvN '피리 부는 사나이'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소통'을 이야기한다.

그동안 드라마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협상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마디의 말, 상대를 이해하는 감정이 어떤 힘을 갖는지를 들여다본다.

드라마는 기업 협상이 출신으로 경찰내 위기협상팀 외부 자문위원으로 변신한 주성찬(신하균 분)이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인질극, 분노 범죄, 강도, 테러 사건을 해결해나가면서 수많은 사건의 배후에 있는 미지의 '피리 부는 사나이'를 찾아나가는 모습을 담는다.

지난해 SBS TV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재벌의 이층성을 보여줬던 배우 유준상이 야망 많은 앵커 윤희성 역을 맡아 '대중은 힘없는 사실보다 자극을 원한다'는 세상의 편견을 대변한다.

'놀면'이지만 공감능력 하나로 투쟁대원에서 협상관이 된 여명하 역은 조윤희가 맡았다.

신하균은 '피리 부는 사나이' 제작발표회에서 "장르 드라마로서 보여줄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확실해 출연하게 됐다"며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소통,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촬영에 대해 "거의 말로 풀어나는 역할이어서 몸이 힘들지는 않다. (여배우인) 조윤희 씨보다도

편하게 촬영하는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앵커 역할을 위해 전자에서 호흡을 맞췄던 백지연 전 앵커에게 찾아가 레슨을 받기도 했다는 유준상은 "사회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이 매력 있었다"며 "협상을 소재로 그냥 스쳐갔던 여러 사건,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털어냈다.

김홍선 PD는 "협상이라는 건 줄 걸 주고, 받을 건 받는 '기브 앤 테이크'인데 우리 드라마는 줄 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출발했다"며 "줄 게 없는 사람은 협상을 할 수 없는데 이들에게 왜 소통이 필요한가를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그려내겠다"고 말했다.

협상이라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해 이번 작품을 쓰게 됐다는 류용재 작가는 시청률 5%가 넘으면 경찰에 있는 현지 협상관들에게 점퍼를 선물 하겠다는 '시청률 공약'을 하기도 했다.

'피리부는 사나이'는 '치즈인더트랩' 후속으로 3월 7일 밤 11시 첫 방송 된다. /연합뉴스



지난 2015년 기부 약정서를 교환하는 주필호 대표(오른쪽)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

영화 '순정' 수익금 전액 기부

고흥 출신 주필호 대표 유니세프 사업 지원

고흥 출신 주필호 주피터필름 대표가 지난 24일 개봉한 영화 '순정' 제작사분 수익금 전액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흥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순정' 순수한 첫사랑과 다섯 친구의 우정을 그리고 있으며 개봉 후 사흘간 누적 관객 수 15만 명(27일 기준)을 넘어섰다.

앞서 주피터필름은 2014년 4월 세월호 기금 1억원을 시작으로 후원자 초청 나눔 강연, 영화 '관상'의 수익금 50%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니세프 사업을 지원했다. 주필호 주피터필름 대표는 "영화 '순정'이 큰 사랑을 받아 더 많은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귀향' 돌풍...하루 30만명이 본다

개봉 4일만 손익분기점 돌파...박스오피스 1위

영화 '귀향'이 지난 27일 하루 30만명이 가까운 관객을 모으며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 28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귀향'은 전날 전국 769개 스크린에서 3천215회 상영되면서 29만6524명(매출액 점유율 29.7%)이 관람했다.

누적 관객 수는 75만6665명에 이르러 손익분기점(약 60만명)을 돌파했다.

'귀향'의 박스오피스 점유율은 개봉 첫날 23.1%, 이틀날 26.1%, 사흘째 29.7%로 갈수록 높아지며 나흘간 1위를 달렸다.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크린 수와 상영횟수가 점점 늘어난 결과다.

이날 오전 8시30분 현재 실시간 예매율 29.7%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다. 좌석 수 대비 관객 비율인 좌석점유율도 47%대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기세라면 이날 관객 100만명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귀향'은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가 미술 삼리치로 중매 그린 '대위지는 처녀들'을 모티브로 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극영화다.

영화는 제작에 착수한 지 14년 만에 7만5000명이 넘는 국민 후원과 배우·제작진의 재능기부로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EBS1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성경시대 가능한국인 06:10 EBS 인문학 특강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당동명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캐니멀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 테마 기행(재)
7 50 인간극장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프리앤 인 12:40 지식채널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출가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스 14:00 미술탐험대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5:00 포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피터 래빗 15:35 꼬마기사 마이크 15:50 으르르차 아이쿠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20 닥터365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16:00 캐니멀 16:30 코코코 다코 16:45 당동명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 18:05 플라워링 하트 18:2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2 18:25 두키 탐험대 18:4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3 18:45 똑똑! 우리 몸 X파일 18:55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9:30 EBS 뉴스
9 20 시사 인사이트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그린 실버 고향이 좋다	10 좋은 아침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안데스의 영혼을 찾아서, 칠레> 21:30 한국기행 <겨울왕국 울릉도> 21:50 EBS 다큐 프라임 <백성의 물고기> 22:45 달라졌어요 23:35 시대 공감 24:05 지식채널e 24:10 EBS 인문학 특강 <장대호 교수의 '과학으로 말하는 인간'>
11 4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밥상의 전설> 55 안녕 우리말(재)	00 월화드라마 <우림학교>(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닥터 365 05 세상발견 유레카(재)	
12 00 KBS 뉴스 12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	
1 10 뉴스특급	00 연중기획 <빛을 행복아카데미>	00 사람과 사람들(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30 직언직설	00 2016 총계 대학축구연맹전 결승전	00 KBS 뉴스타임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2.0	00 키즈 사이언스 6	00 토크콘서트 화통(재)	
3 55 튜튼생활체조	05 후투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착상 위키	05 후투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착상 위키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 20 취재파일 K(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자연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일일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야 30 안녕 자두야>	
5 4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토크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05 시사타자 따따따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TV 주치의 닥터 지.바.고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공사창립기획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우림학교>	00 월화 특별기획 <화룡이 나르샤>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0 동상이몽 관찰야 관찰야	
12 40 부르면 갑니다 머슴아들	20 해외갈즈드라마 <닥터 포스터>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9일 (음 1월 22일 후일)

<p>子 48년생 안갑과 정도를 조절한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생 특별해서 쉽게 식별할 수 있으리라. 72년생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워하게 된다. 84년생 불합리하다면 빨리 개선하자. 행운의 숫자 : 05, 53</p>	<p>午 42년생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54년생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행함이 가장 무난하다. 66년생 집중해야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78년생 능력을 키우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행운의 숫자 : 11, 66</p>
<p>丑 49년생 즉시 시원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년생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73년생 지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85년생 견문을 넓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행운의 숫자 : 30, 87</p>	<p>未 43년생 지나치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55년생 사소한에서 벗어나 대의를 도모하게 되는 법이다. 67년생 처리하기가 매우 수월하겠다. 79년생 지나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1, 42</p>
<p>寅 50년생 걸음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갖가지 난제들 덩어리다. 62년생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가려서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74년생 원안만 찾아낸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86년생 좁은 폭으로 길게 이어지는 형상이나. 행운의 숫자 : 45, 64</p>	<p>申 44년생 크게 상관될 바가 아니니 기존의 도량대로 추진하라. 56년생 순간적인 걱정을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68년생 두루 살펴보고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 80년생 험은 들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7, 04</p>
<p>卯 51년생 막연한 생각에 그친다면 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63년생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75년생 여러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게 되리라. 87년생 변화에 따르는 상심감이 크겠다. 행운의 숫자 : 76, 23</p>	<p>酉 45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다. 57년생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이로우리라. 69년생 집착을 떨쳐버린다면 폭넓은 시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81년생 굳이 지엽적인 부분에 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73, 29</p>
<p>辰 40년생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무탈하다. 52년생 참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64년생 보통 보다는 나이나 파격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76년생 안심해도 되느니라. 88년생 보탬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9, 92</p>	<p>戌 46년생 길조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으니 기대해 볼만하다. 58년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70년생 여기저기에서 불편한 문제들이 속출하는 대목이로다. 82년생 진행 과정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크다. 행운의 숫자 : 86, 52</p>
<p>巳 41년생 본보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65년생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옳겠다. 77년생 상실감이 빠진다. 89년생 기대했다는 뜻이 어긋나지 않아 다행이 되고자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8, 39</p>	<p>亥 47년생 변화 가능성은 열어 두되 초과할 필요는 없다. 59년생 시적은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희열로 가득 차리라. 71년생 밤심하지 다가 어차구니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느니라. 83년생 철저히 절제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52, 90</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